

전남 동부권

순천 탈·불법 보도방 판친다

40여개 업체 무허가 영업... 유형업소 도우미 알선 하루 20만~30만원벌이 유혹에 주부들까지 나서 보건 안전에도 빨간불... 당국 관리 단속 강화 해야

유형업소에 도우미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영업이 순천지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관계 당국의 단속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보건증 발급 대상인 보도방 도우미들에 대한 관리도 허술해 보건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5일 순천지역 유형업계에 따르면 현재 순천에는 도우미를 알선하는 보도방이 40여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보도방들은 평균 10명의 도우미를 두고 운영중이며, 일부 보도방들은 30~40여 명의 도우미를 두고 운영중이다.

도우미들은 업소로부터 시간당 3만원, 2차(매춘행위)를 나갈 경우 23만원을 받고 있다. 여기에 도우미를 관리하는 '보도방'은 도우미에게 알선료로 시간당 5000원과 2차시 3만원

의 수수료를 떼고 있다. 보도방들은 3년전까지는 직업소개소로 허가를 받아 영업을 했지만 50여개가 넘는 보도방이 1개의 사무실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다시 뿔뿔이 흩어지면서 지금은 무허가로 성행중이다.

보도방들의 횡포 또한 극에 달해 있다. 이들 보도방들은 업주나 손님이 까다로워 도우미와 마찰을 빚을 경우 다른 보도방들과 짜고서 도우미를 보내주지 않는 등 업주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

조례등에서 유류 주점을 운영중인 이모(33)씨는 "처음 보도방이 생겼을때는 자기 보도방을 써 달라고 흥분을 하고 다녔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 업주가 보도방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토로 했다.

도우미들의 수입이 좋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하루 평균 5~7만원에서 20~30만원까지 손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보도방들의 유혹에 도우미로 나서는 주부들까지 늘고 있다.

이와함께 보도방 도우미들의 보건증 발급 이후 관리에도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유형업소 종사자는 최초 보건증 발급시에만 일할 곳을 명시하면 된다. 이 때문에 보건소는 발급이후 유형업소 종사자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고 정기검진시 성병 등의 질병에 양성반응이 나타날 때 파악할 수 있어 사후 약방문식 관리에 그치고 있다. 도우미들은 특히 한 업소에 등록을 해놓고 실제로는 보도방 도우미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순천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올해 들어 4건의 보도방을 단속했다"며 "불법 보도방 근절을 위해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순천시청 직원들이 5일 오전 출근하는 직원을 향해 "좋은 아침입니다"라는 인사말과 함께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순천시는 이달부터 매주 월요일 아침 출근시간에 직원간에 서로 인사를 하는 '굿모닝 해피데이'를 운영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여수 웅천택지 발굴 매장문화재 복원

지석묘 등 유물 77점 망미문화예술공원으로 이전

여수 웅천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예술마루가 있는 망미문화예술공원으로 이전·복원된다.

여수시는 이에 따라 발굴된 유적 중 상태가 양호하고 복원 가치가 있는 지석묘 3기, 석곽(석관) 9기, 삼국시대 토광묘 1기를 올해 10월까지 이전·복원에 교육·홍보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전·복원이 완료될 경우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가속화와 함께 GS칼텍스에서 조성중인 예술마루, 망미문화예술공원이 역사 문화의 명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여수시는 이에 따라 발굴된 유적 중 상태가 양호하고 복원 가치가 있는 지석묘 3기, 석곽(석관) 9기, 삼국시대 토광묘 1기를 올해 10월까지 이전·복원에 교육·홍보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전·복원이 완료될 경우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가속화와 함께 GS칼텍스에서 조성중인 예술마루, 망미문화예술공원이 역사 문화의 명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여수박람회 전시물 운송 업체 8곳 선정

2012여수세계박람회 추진 통관·운송 업체로 국내외 운송 업체 8곳이 선정됐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5일 범한판토스, 현대로지엠, 동부익스프레스, 셀카코리아, 세종해운, 선진해운항공, 유피에스에스씨에스코리아, 아이맥스에프씨 등 8곳을 통관·운송 추진 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여수엑스포에 참가하

는 100여개 국가의 전시·운영 물자의 통관 및 운송을 담당하게 된다. 참가국 현지에서 여수의 엑스포 물류창고까지 전시·운영물자의 운송과 폐막 이후 반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예상 전시물량은 40피트 컨테이너 200대 정도다.

엑스포 물류 창고에서 박람회장까지의 운송은 박람회 물자 통관·운송 부문 공식후원사인 대한통운과 한진

이 전담하게 된다.

조직위 김중환 물자관리부장은 "대규모 국제 행사 참여 경험이 있고, 수행 능력이 뛰어난 국내·외 전문기업으로 선정했다"며 "이 업체들은 통관·운송 공식사업자인 대한통운, 한진과 함께 대한민국 물류 산업 수준을 세계에 알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목기·춘향골 포도·파프리카... 남원특산물 추석선물 인기

추석을 앞두고 남원 특산품들이 실속형 명절 선물로 각광받고 있다.

남원지역은 지리산을 중심으로 고냉지와 평야지로 구분돼, 타 지역에 비해 수확기간이 길고 고랭지 과일은 일교차가 커 당도가 높고 신선하다. 특히 고유의 향이 깊으면서 조직이 치밀해 신선도가 오래 유지된다는 특징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남원의 대표적 지역특화 작목인 사과, 포도, 파프리카, 멜론, 배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맛과 당도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춘향골 포도=포도는 남원이 전북 최대의 주산지다. 섬진강과 지리산을 중심으로 780여 농가가 355ha를

재배하고 있다. 수확기간이 길고, 당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저장성이 좋아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되고 있다.

특히 해발 400~700m 고랭지인 지리산에서 재배되는 '홍부골 포도'는 여름철에는 서늘한 기후와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 맛과 향이 뛰어나다. 지난해 농촌진흥청 주관 탐프루트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홍부골 포도는 품질 기준을 엄격히 정해 당도 15브릭스 이상, 무게 솜이 당 380g에서 420g, 착색도 최상급, 잔류 농약 허용기준 이하 등 고품질 포도를 생산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리산 고랭지 청정 사과=지리



<목기>



<멜론>



<파프리카>

산원에서 생산된 사과는 40년이 넘는 사과 재배역사와 일교차가 커 과육이 단단하다. 또한 당도가 높고 고유의 향과 빛깔이 고아 명품사과로 도시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다.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농협 하나마트는 물론 러시아에도 수출돼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남원 사과농가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번 추석 선물로는 9월 초순부터 생산되는 조생종 홍로, 아우리 등이 판매된다.

▲파프리카=남원 파프리카는 고랭지 여름철 서늘한 기후 특성을 살려 육성된 탓에 저장성이 뛰어나고 과육이 두터우며 아삭아삭한 맛이 일

품이다.

시에서는 남원의 독특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명품 파프리카 생산을 위해 첨단 시설하우스, 양액시설 등을 통해 생산비 절감과 시설하우스 17.7ha에 2300t을 연간 생산·출하할 수 있도록 유통체계를 일원화했다. 개방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량 절반 정도를 수출 목표로 잡고 있을 만큼 수출농업을 선도하는 작목이기도 하다.

그동안 재배면적 확대와 품질개선에 꾸준히 노력한 결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2007년도 원예전문생산단지 중 최우수 단지 선정, 2011년도 농

식품부 원예전문생산단지 평가 전국 최우수를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최고의 목공예품 '남원목기'=에로부터 남원목기는 목재의 독특한 문양과 은은한 향으로 인해 유명해져 요즘에는 웰빙시대를 맞아 현대인들에게도 더욱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시는 남원목기를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으로 등록해 유사상품과 차별화하는 한편 현대감각에 맞는 샐러드사발, 찻잔세트, 추어그릇, 캐리어 어린이용 그릇 등 새로운 제품들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뉴스 브리핑

김제경찰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 운영

김제경찰서가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달까지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초·중·고 재학생 가운데 폭력사건을 조직하고 가입한 적이 있는 가해학생 및 이로부터 피해를 입은 학생이며 교사·부모·친구가 신고해도 동일하게

인정된다. 사이버 경찰청 학교폭력센터나 김제경찰서 청소년사이버상담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조용성 김제경찰서장은 "김제교육청과 연계해 자진 신고 학생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고 비밀보장, 진로·법률 상담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순진기자 hnews@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무료시네극장 운영

(재)전주국제영화제가 6일 전주 완산구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다양한 영화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무료시네극장' 행사를 연다.

시영작품으로는 오르세미술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허우 사오시엔 감독의 '빨간

풍선'과 짐 자무시 감독이 아들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옛 여인들을 찾아가는 독신남 이야기를 연출한 '브로큰 플라워'가 선정됐다. '빨간 풍선'과 '브로큰 플라워'는 각각 오후 2시와 5시에 상영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생명공학, 바이오연 전복캠퍼스로 명칭 변경

정읍시 신정동에 있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이 '바이오소재연구소 전북캠퍼스'로 명칭을 변경했다.

바이오소재연구소는 악성전염병에 대응하는 소재·기술 개발, 전북 식품클러스터사업 지원, 유용 미생물소재의 대량 생산 등을 위한 최고 연구기관으로 발돋움

하겠다고 밝혔다.

초대 연구소장으로 취임한 이우송 박사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의 친환경바이오소재 연구센터장을 지냈고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치료용 생물소재를 개발한 공로로 농림수산식품부 과학기술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군산 철새조망대 추석연휴에도 개방

군산 철새조망대가 추석연휴에도 일련에 개방된다.

군산시 철새조망대는 "올해로 8회째를 맞는 '군산세계철새축제'가 11월 16~20일에 열리게 됨에 따라 이를 널리 알리고자 추

석 연휴기간에도 일반에 개방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철새조망대측은 연휴에도 평소와 같은 시간대(오전 10시~오후 6시)에 조망대를 개방할 방침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금기기자 nogusu@

익산 주민들 '古都 육성' 나섰다

역사유적 세계유산등재보전관리 주민협 발족

익산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등재를 위해 익산지역 주민들이 나섰다.

익산시는 최근 금마면사무소에서 유기상 부시장을 비롯한 학술 관계자와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사)익산고도육성·세계유산보전관리주민협회의 회 개소식을 했다.

금마지역 주민이 중심이 된 주민협의회는 총 45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초 익산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등재와 고도(古都) 육성에 익산지역주민들이 뜻을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발기인회의와 창립총회, 법인 설립 등기를 거쳐 이날

출범하게 된 것이다.

주민협의회는 익산에 산재한 역사유적을 안팎에 널리 알리는 데 앞장 서게 된다. 문화 마인드 함양, 선진지역 자료 조사 등을 통해 스스로 역사도시의 지식을 축적하는 다양한 활동도 벌인다.

유 부시장은 "고도는 국내에서 4곳밖에 지정이 안될 정도로 영예로운 자역"이라면서 "고도의 주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익산 고도를 구현하는데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정부가 고도로 지정된 도시는 익산, 공주, 부여, 경주 등 4곳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추석연휴 전주서 문화체험 하세요

한옥마을 등서 송편 빚고 널뛰기 전통놀이행사

추석 연휴가 길지 않지만 사람들이 삼이 문화행사가 풍성한 전주를 찾는 것은 어떨까. 가족과 함께 하는 즐거움에 추억까지 얻을 수 있다.

전주 한옥마을을 찾으면 거리 이곳저곳에서 특색이 녹아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날 수 있다.

전주전통문화센터는 10~13일 '추석에 지정이 안될 정도로 영예로운 자역'이라면서 "고도의 주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익산 고도를 구현하는데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강조했다.

송편을 만들어서 맛보는 송편 빚기와 한지 제기, 딱지 등을 만들고 즐기는 체험을 내내 할 수 있다. 널뛰기, 투호, 제기, 굴렁쇠, 지게, 북 등 민속

놀이 체험은 덩이다.

또 전통 혼례복을 입어보거나 장구로 우리 가락을 맛보고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엮어서 만든다.

전주 한옥생활체험관에서는 연잎과 호박, 맨드라미로 색색의 송편을 빚어 보고 고소한 전을 부친다.

떡메를 쳐서 콩고물을 묻혀 먹는 슬로푸드, 인절미를 만들고 가족 대항 놀이 한 판에 참여하거나 한지를 이용해 가오리연을 만들어 날릴 수 있다.

전주역사박물관 '추석맞이 세시풍속 한마당(10~13일)'에서도 줄다리기, 율놀이, 투호놀이, 제기차기 등 다

양한 민속놀이가 기다리고 있다.

이번 추석연휴에는 영화도 즐길 수 있다. 전주전통문화센터는 '가족영화극장'을 열어 '글러브(10일)', '라퐁젤(11일)', '명탐정 코난(12일)', '회초리(13일)' 등 관람을 놓쳤던 아이들을 위해 흥행 영화들을 모았고 전주역사박물관도 이 기간 '꿀벌 하치의 대모험', '갈리버 여행기', '공룡시대', '맨발의 꿈' 등을 매일 오후 2시 상영한다.

전북 도립미술관을 찾아 나무로 윗·포크를 만들어보거나 '영혼의 연금술, 공예전'을 관람하고 '하치 이야기', '나니아 연대기' 등의 영화를 보면 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